폐허 경제학

(창13:1~20)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폐허 경제학'
성경이 인간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취득하고 분배하는 모든 인간의 활동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돈 벌고, 투자하고, 돈 쓰는 활동 전체를 이론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것이 경제학이라면, 성경이 재물과 관련된 우리들의 활동인 재화의 생산, 취득, 분배에 관여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경제학 이론이 폐허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권맨 아시죠?

사람들에게 어느 증권이 좋고, 어느 주식이 좋다고 권유해서 주식 투자를 유도하고, 주식 투자가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증권맨들이 있습니다. 양심적인 증권맨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주식투자에 관한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관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채 수익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마치 오목을 둘 때에 내가 공격하는 것만 생각하느라고 상대방이 3*3을 만들고 있는데 전혀 못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할 것만 생각하다가 위험관리가 안 된 상태로 점점 더 진입하게 되면, 나중에 아주 불행한 투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험관리를 하게 될 때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위험요소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거 참 이상하죠?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risk를 감수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투자에는 결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족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자족하는 사람 중에 누가 투자를 합니까?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권맨들이 지금 자족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말임을 알고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의 위험을 없애려면 근본적으로 자족하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자족하면서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투자에만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경제이론 자체에 정답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는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 증권맨들과 비슷한 말을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미국의 '연방 준비제도이사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의장을 미국의 경제대통령, 좀 더 확대하면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무려 2008년까지 18년 동안 4번의 의장직을 수행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1987년부터 이 의장직을 연거푸 4번을 맡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의장직을 맡고 있을 그 때에 미국에 30여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 재정흑자 및 고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의회청문회에 불려 나왔어요. 왜 불려 나왔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량대출로 인해서 '리먼브라더스'라고 하는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은행이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리먼브라더스가 자기네만 부도 처리되고 파산하면 괜찮은데, 증권가에서 리먼브라더스가 차지하고 있었던 신용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돈이 엄청나게 차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으로 줄줄이 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닥쳐버리고 맙니다. 이 금융위기 같은 것에 대처하는 일이 이 연방 준비제도이사회의 일이거든요.
그동안 잘해왔던 이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추궁받기 위해서 의회에 불려오게 되고, 의회에서 많은 말이 오고 갔겠지만 인상적인 말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리먼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이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하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묻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린스펀이라는 분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 뭐냐?
바로 규제완화와 시장의 자유경쟁입니다. 자유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겨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경쟁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리먼브라더스가 전 세계로부터 돈을 끌어들여서 부실 부동산에 투자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그린스펀이 한 말이 "지금도 나는 규제완화와 자유 시장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떤 경제이론이나 경제제도도 인간의 탐욕을 다스릴 수는 없다.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를 알고 절제하고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무한경쟁궤도로 자기의 탐욕을 따라 이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앞에 증권맨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험부담을 줄이는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규제 완화를 해서 시장의 경쟁을 자유롭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궁극적으로 탐욕을 제어할 수 없는 한 어떤 경제이론도 경제를 온전히 이끌어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경제이론의 귀결이 뭐예요?
어떤 경제이론도 답이 아니고, 투자에 정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하는 2류, 3류 경제학자들의 경제이론이라는 것들, 대가들을 따르는 아류로서의 경제이론을 말하는 것들이 다 미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느냐에 대해 자기계발서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오는데 다 미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 점이에요.
정답인 경제학이론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제학이론도 정답이 아니고, 투자에도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경제학이론을 갖고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영원불멸한 경제학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네게브라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쪽 지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벧엘과 아이가 나타납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은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한 곳이에요. 그런데 벧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라는 곳이 폐허라는 뜻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내려고 성경이 썼느냐?
그리고 이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장막을 친 그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13장에서 다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엄청나게 증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두 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 없을 만큼 재산이 증식했어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말은 금과 은도 있지만 주로 가축이거든요. 가축 때문에 풀과 물을 확보하느라고 롯의 목자들과 아브람의 목자들이 서로 싸움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말을 합니다.
잘 아는 대로 롯은 소돔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충분하고 목초지가 너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곳을 찾아 간 거예요.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이런 불화가 생긴 것을 서로 분가해나가면서 서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활동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 돈 벌 수밖에 없고 재물에 관계할 수밖에 없을 때에, 도대체 어떤 경제학이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폐허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왜 폐허 경제학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벧엘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세상을 등졌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등쳤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삶인 집 짓고, 장사하고 사는 지상에서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폐허로 처리하고 마음이 손을 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폐허로 처리하고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돈 벌 때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벌고 싶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이 1등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외의 다른 세상 것에 관심이 끌리려고 할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끌리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 되는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목숨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하기만을 바래서 제단을 쌓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까지 가는 과정 중에서도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1등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아서 아내와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오해했던 본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내와의 관계조차도 손을 떼고 폐허로 두는 사람, 모든 이 지상의 삶을 마음에서 폐허로 취급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 벌려고 할 때에, 하나님만 벌려고 했던 이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자신과 조카의 재산이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겠느냐는 겁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다는 것만 보면 앞에서 애굽에 갔을 때에 애굽 왕이 사래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람에게 많은 재산을 줍니다. 그 때의 재산이 주로 가축이지요.
준 다음에 사래가 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화가 났지만 그 재산을 빼앗지 않고 아브람에게 다 갖고 나가도록 합니다. 아내도 뺏기지 않고 재산만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아브람이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투자를 했습니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가지고 사기를 쳐서 아내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아 온 겁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뭡니까?
자기의 지상의 삶에 대해서 마음으로 폐허처리를 하면서 벧엘인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벌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증식이 됐습니다.
이거 묘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같은 곳에 못 있으니까 이제 분가를 하려고 합니다.
9절에 아브람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폐허가 된 마음이에요.

지금 자기의 재산이 순조롭게 증식이 되려면 목초지를 구해야하고 물을 구해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목초지와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몇 백km 떨어진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접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경제활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잡아야하는 이 상황에서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 폐허처리를 해버립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줘버립니다. 나는 나머지나 갖겠다며.
롯은 소돔 땅을 보니까 물이 찰랑찰랑하고 푸른 목초지가 가득하고 에덴동산 같다고 했어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을 눈으로 보고 투자가치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아브람 밑에서 롯의 재산도 증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도시인 소돔으로 갔다고 했어요. 뭘 뜻합니까?
폐허 경제학이론의 지배하는 삶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제는 경제활동의 영역에 자기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투자를 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죄악으로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자기 몸뚱이 하나 빠져나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 아내까지 소금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딸 둘을 데리고 몸만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폐허경제학이론을 던져버리고 자기가 경제활동 영역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면서 나갔을 때 나타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증권맨이 말한 위험한 투자가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경제원리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왜 폐허 경제학이라고 하느냐?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서 자기가 투자할 만한 땅이 어딘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안 보고 있습니다. 투자할만한 부동산을 찾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폐허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눈을 들어서 좀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우 보는 척을 해요.
왜 보는 척을 한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람이 한 일이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시니까, 보라고 해서 보긴 봤지만, 눈에 보이는 땅에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느끼자마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땅에 끌려가는 자기 마음을 제단에서 죽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을 폐허 처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마음에서 1등 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벌기 위해서 다시 폐허 처리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잘 보면, 아브람의 이 땅에서의 부동산과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 애굽에서의 재산의 증식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보니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재물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전문이십니다.
우리가 폐허 처리한다고 해서, 경제활동 영역을 벗어나고 직장을 벗어나고 가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가계를 폐허 처리하고, 직장 안에서 돈 버는 것을 폐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뭘 하느냐?
아이와 벧엘 사이에 장막을 치고, 돈 버는 일에 폐허 처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겁니다.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에서 하나님 벌려고.
하나님 번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직장 안에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 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버는 겁니다.
그 기쁨과 만족으로부터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 관계, 자식 관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먼저죠.

이 아브람에게서 보여 지는 폐허 경제학이 예수님의 입에서 다시 나옵니다.
마6: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로만 듣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재물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관계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가장 올바른 관계를 취하기를 원하느냐? 올바른 경제학 이론을 따라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경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경제활동을 해야 될 영역을 마음에서 폐허처리를 해버려라. 그곳에 머물러 있으되,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산 다 팔고 우리 울타리로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 머물러 있으되 그곳에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폐허 처리해 버려라.'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경제활동을 해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폐허경제이론입니다.

그리고 마6:25절에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방인들만이 경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느냐?
경제활동 영역을 폐허처리하면서 경제활동 영역에서 이방인들이 돈 벌려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벌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학이론입니다.
돈 버는 것 아니에요. 돈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태도는 돈 버는 일을 폐허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 같은 곳에 가면 고적들의 폐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증권맨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투자 위험을 줄이는 일이 어디 있느냐? 자족하는 길이다.”
이건 사실 어불성설이죠. 자족하면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린스펀이 말한 것이 뭡니까?
“어떤 경제이론도 인간의 탐욕을 제어할 수는 없다. 탐욕은 자기 자신의 인격적인 영역의 문제이고 그 경제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전제로 한 뒤에 적정선에서 자제할 줄을 알고 경제이론을 펼쳐내는 것이지, 어떻게 경제이론이 그것까지 관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할 수 있습니까?
수익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일단 가동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십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돈 벌고 싶고,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죽여 버리세요. 그게 바로 경제학이론입니다. 폐허경제학이론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버세요. 돈 벌어야 한다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서 폐허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이 폐허경제학이론만이 세대를 관통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험 없이 재물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폐허경제학이론의 실천적인 대가들이 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예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브람처럼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고 돈 벌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이 죄적 체질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십자가로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와 벧엘 사이, 십자가를 가지고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서 하늘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 아브람이 기도원에 가서 제단 쌓고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상의 삶에 오셔서 경제활동을 추진하고 싶으셔서 몸부림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내 필요를 이만큼 벌어야 한다고 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폐허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증권맨들이 말하는 자족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제단에서 나를 제물로 드리면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하는 가운데 내게 물질적인 궁핍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적인 차원의 삶의 문제를 다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지금 왜 쪼들립니까?
아직도 폐허경제학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하는 문제를 이 말씀을 믿고 폐허경제학을 굳건히 붙잡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제활동의 영역은 아이(폐허)가 되게 등돌려버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버는 데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양심 있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답이 없다는 말과 양심 있는 증권맨들이 말하는 투자에 정답이 없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시되는 폐허경제학이론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감을 통하여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